

2년차 브라질 출신 기수의 대단한 반란

한국 데뷔 1년 반 만에 100승...안토니오의 '코리안 드림'

서울 3경주 우승으로 '초고속 100승' 작년 두배 승률로 서울 기수 다승 1위 한국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미래의 꿈

"기회를 주신 조교사들과 마주들에게 감사하다. 더 많은 우승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브라질 출신의 안토니오(31세, 프리) 기수가 한국 데뷔 1년 반 만에 100승을 돌파했다. 17일 서울 제3경주에서 핑큐마더를 기승해 우승하면서 이룬 쾌거다. 이날 안토니오 기수는 9번 출전해 1위를 4번이나 차지했다.

2006년부터 브라질과 싱가포르에서 활동한 안토니오 기수는 지난해 국내 무대에 데뷔, 올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데뷔 시즌인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은 335회 출전해 26승을 거두며 승률 7.8%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2일까지 485회 출전해 78승을 기록하며 한국마사회 랭크업 서울의 기수성적별 순위에서 다승 1위를 달리고 있다. 승률이 지난해 2배가 넘는 16.1%까지 상승해 다승 2위(67승) 임기원 기수를 따돌리고 있다.

안토니오 기수의 국내 통산 성적은 104승, 현재 활동 중인 외국인 기수 5명 중 100승을

넘은 기수는 안토니오 기수와 다나카(34세, 프리, 일본) 기수뿐이다. 다나카 기수가 2013~2015년, 2018년까지 약 4년 동안 116승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안토니오 기수는 불과 1년 반 만에 거둔 성과라 더 대단하다.

이에 안토니오 기수는 "한국은 외국과 기승, 조교 스타일이 달라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며, "음식도 입에 잘 맞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기수는 한국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인 경주로 코리아컵(GI)을 꼽았다. 9월 전 세계 경주마들이 서울에 모이는 국제경주 코리아컵(GI)에서 돌풍과 함께 한국 경주마 10두 중 최고인 준우승을 기록했다. "큰 국제경주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세계 국가대표급 경주마들과 뛰어 준 우승을 차지한 영광을 한국 국민들과 나누고 싶다. 다음 코리아컵(GI)에도 도전해서 꼭 우승하고 싶다"라는 말도 전했다.

"한국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라는 안토니오 기수가 개인통산 100승 돌파를 계기로 한국 경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안토니오 기수는 지난해 5월 한국 데뷔 이후 1년 반 만에 100승을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랭크업 서울에서 열린 대상경주 과천시장배에서 우승한 안토니오 기수가 경주마 대원마와 함께 시상식에 참가한 모습.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2세 신예마, 데뷔 첫 대상경주 승자는?

25일 농협중앙회장배

2세 신예마들이 데뷔 첫 대상경주에서 1200m 단거리 대결을 펼친다. 25일 한국마사회 랭크업 서울 제9경주로 열리는 제 15회 농협중앙회장배에는 수득 상금 1억원이 넘는 슈퍼투키 경주마 핑큐찰리, 스프링백, 문학조이 등이 나선다.

●핑큐찰리 (거, 2세, 미국, R70, 최용구 조교사, 승률 75.0%, 복승률 75.0%)

3연승 중이다. 3번의 경주에서 수득한 상금이 약 1억3000만 원으로 출전마 중 압도적으로 높다. 10월 직전 경주에서는 출발부터 결승까지 선두를 유지하면서 2위와 6마신의 큰 차이로 승리했다. 1200m 경주는 2번 출전

해 모두 승리했다.

●스프링백 (거, 2세, 미국, R65, 안병기 조교사, 승률 66.7%, 복승률 100.0%)

7월 데뷔전에서 무려 9마신 차이로 승리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최초 도입가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경주마다. 데뷔 후 3번 출전해 우승 2번, 준우승 1번을 차지했다. 1200m 경주는 처음이다.

●문학조이 (수, 2세, 미국, R73, 정호익 조교사, 승률 60.0%, 복승률 80.0%)

데뷔 후 5번 출전해 출전마 중 경주 경험이 가장 많다. 9월 1400m 경주에서 출전마 중 가장 높은 레이팅인 73으로 오르며 2등급으로 승급했다. 10월 경주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직선주로 구간에서 역전을 거듭

3연승 핑큐찰리·2승 스프링백 출전 경주 경험 많은 문학조이도 대항마

허용하며 4위에 머물렀다.

●왕벚꽃 (수, 2세, 미국, R64, 박대홍 조교사, 승률 66.7%, 복승률 100.0%)

농협중앙회장배와 동일거리인 4일 1200m 경주에서 2위와 6마신 차로 승리했다. 판리를 맡은 박대홍 조교사는 올해 54승을 거두며 다승성적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상승세를 이어 1승을 추가할지 기대된다.

●올트라편지 (거, 2세, 미국, R60, 안병기 조교사, 승률 66.7%, 복승률 66.7%)

9월 데뷔전에서는 9두 중 5위로 인상적이지 않았으나, 이어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행진을 달리고 있다. 1000m 경주만 출전했으며 1200m 거리 적응이 관건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마 단신

한국마사회 승용마 품평회 시행

한국마사회는 14일과 15일 랭크업 서울 86아시아게임 승마경기장 및 실외마장에서 2018년 스포츠말 승용마 품평회를 진행했다. 2~3세의 국내산 말을 대상으로 체형, 보행, 프리점핑 3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4개의 등급으로 나눴다. 23두의 말이 참여해 이 중 17두가 합격했으며, 합격마 대상으로 총 20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전 경마 문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한국마사회는 17일 랭크업 서울 복지관에서 건전경마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수상자 14명에게 상장과 상금 650만원을 수여했다. 공모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선량한 고객을 불법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

해 계획됐다.

대한노인회와 일자리 창출 MOU 체결

한국마사회는 16일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대한노인회와 양질의 노년층 일자리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마사회는 7월 주요 간부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마사회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해 김중길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지사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직 직종을 별도로 설계해 채용하고 있다.

24~25일 건전화캠페인 시행

한국마사회가 24일부터 이틀간 랭크업 서울에서 건전화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망치로 구매상한 초과 불룩을 제거하는 체험이벤트', '도박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건전화 4행시 짓기 온라인 이벤트' 등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축구팬 85%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깬다"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중간집계

K리그1 6경기·EPL 8경기 대상 에버턴·울버햄턴도 승리 압도적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8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에서 국내축구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홍·이하 맨유)·크리스탈 팰리스(원정)전에서 85.31%가 홈팀 맨유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9.16%로 나타났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 예측은 5.52%를 차지했다.

맨유가 안방인 올드트래포드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불러들인다. 이번 회차에서 토토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맨유는 현재 리그 8위(6승2무4패)로 상위권 진입을 계속해서 노

리고 있는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16위(2승2무8패)로 부진에 빠져있다.

더불어 홈경기를 치르는 에버턴과 울버햄턴도 모두 높은 승리 투표율을 기록했다. 먼저 에버턴은 카디프시티를 상대로 82.69%의 투표율을 얻었고, 허더즈필드타운을 상대하는 울버햄턴 역시 72.16%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K리그에서는 울산현대(68.33%)와 전북현대(46.36%)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고됐다. 더불어 FC서울과 경남FC는 각각 44.29%와 41.13%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풀럼-사우샘프턴전은 양팀의 무승부 예상(38.59%), 사우샘프턴 승리 예상(36.34%), 풀럼 승리 예상(25.07%)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트넘-첼시전은 양팀의 무승부 예상(35.27%), 첼시 승리 예상(34.12%), 토트넘 승리 예상(30.61%)로 나타나 가장 승부 예측이 어려운 경기들로 평가됐다.

이번 승무패 33회차는 오는 24일(토) 오후 1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한다.

'소즐소행' 시즌2 조회수 4만2000건 돌파

(소소하게 즐기는 소소한 행복)

12월 9일까지 두 가지 이벤트 베틀 500개·다양한 경품 제공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온라인발매사이트 베틀맨을 통해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하는 '소소하게 즐기는 소소한 행복' 시즌2 이벤트가 조회수 4만 2000건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소액 구매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구매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케이토토가 마련한 건전화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재 베틀맨에서는 '소액/소조합으로 건전화'와 '소액/소조합으로 건강하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이벤트인 '소액/소조합으로 건전화!'의 경우 고정배당률게임인 프로토(PROTO)에서 소수 경기(2~3경기) 및 1만원 이하

의 조합으로 구매하면 베틀 500개를 증정하며, 구매한 게임이 적중했을 경우 자동으로 경품에 응모하게 된다. 베틀은 1인1회 증정되며, 12월12일(수)에 일괄적으로 적립된다.

경품의 경우 적중횟수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롯데시네마 영화예매권과 1500명에게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세트를 선물한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두 번째 이벤트인 '소액/소조합으로 건강하게!'에서는 건전 구매 캠페인 동영상 시청하거나 배경화면을 다운로드 받으면 베틀 500개가 주어지며, 이 또한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뜨 1만원 교환권(500명)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700명)를 증정한다. 교환권은 12월 12일(수)에 기프티콘 형태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9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12일에 베틀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배당률 게임 '토토언더오버' 23일부터 40회차 발매 시작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 언더오버'가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40회차 발매를 시작한다.

'토토언더오버'는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혹은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질 기준 값과 비교해 낮은지, 혹은 높은지를 예상해 맞히는 배당률 게임이다.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 값 미만이라면 언더(U)에 표기하면 되고, 초과한다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40회차는 오는 25일과 26일에 열리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4경기과 미국프로농구(NBA) 3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판들을 찾아간다.

프리메라리가는 발바오-헤타페(1경기), 세비야-비야돌리드(2경기), 에스파냐-지로나(3경기), 비야레알-베틀레(4경기)전이 선정됐으며, NBA에서는 LA레이커스-올랜도(5경기), 브루클린-필라델피아(6경기), 새크라멘토-유타저즈(7경기)전이 뽑혔다.